

빛을 남긴 사람들

초창기 한국 전기통신의 발달은 선각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분들은 전기통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기통신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불행히도 통신권이 피탈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여기서는 중요한 업적이 있는 통신선각자 및 공로자들을 중심으로 「빛을 남긴 사람들」이란 제호하에 모아보았다. 인물 선정은 개인적 행적 평가보다는 한국 전기통신 발전에의 공헌도와 인맥 형성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순서 역시 전기통신 분야에 활약한 시기를 기준으로 시대순으로 나열하였다. (편집자 주)

한국 근대 우정의 창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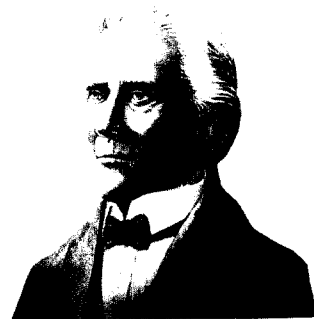


홍영식

- 1855. 12. 29 서울에서 출생
- 1870 (7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 미 상 정자, 대교역임
- 1881. 4.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독일 3개월간 일본 조야 시찰(확인요함)
- 7. 귀국. 통리기무아문 부경리사 취임
- 1882. 부제학. 참의통리내무아문사무. 참의군국사무. 참의교섭통상사무 역임
- 1883. 협판교섭통상사무
- 6. 전권부대신으로 민영익 수행 도미 서부연합전신국과 뉴욕우체국 방문 등 체신제도 시찰
- 1884. 병조참판
- 3. 26 우정총국 총판 취임
- 10. 1 우정국 개국
- 10. 17.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시 갑신정변 주도
- 10. 19 갑신정변 실패로 살해됨
- 1894. 갑오경장으로 신원이 됨
- 1897. 충민이란 시호 내려짐
- 1910. 규장각대제학이 추증됨

* 개화파의 핵심 인물로써 한국 근대 우정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초기 전신 전화제도에 많은 관심과 후견인의 역할을 다했다.

초창기 한국 통신의 代父



미륵사 (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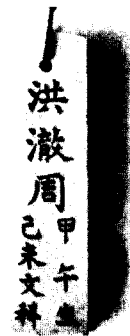
Muehlenstch, (덴마크어) Mühlensteth

- 출생지 덴마크
- 출생 연도 미 상
- 1881. 1. 대북전신회사 입사(덴마크 대북전신주식회사 인사기록카드 : 덴마크 거주 한인교포 진정희 제공)
- 미 상 동사를 휴직하고 청국 전보총국에 고용됨.
- 1885. 7. 12 인천 도착(중국 체신국 소속으로 인천 도착. 상기 자료)
- 8. 12 대북전신회사의 H. Munck, C. S-chiren(사미은)과 함께 서로전신선 기술 감독(대북전신회사 25년사 160 p 참조)차 출발.
- 10. 16 의주에서 중국으로 건너감.
- 미 상 재입국
- 1886. 4. 10 청천강, 대동강 등 水線 가설차 떠남(전기통신 80년사에는 압록강이라 하였음)
- 5. 20 업무 완료후 귀경
- 5. 22 처우 개선 요구
- 8. 10 대북전신회사 의원 변직(대북전신주식회사 인사기록카드 : 덴마크 거주 한인교포 진정희 제공)
- 10. 1 남로전신선 측량차 충주로 떠남
- 11. 5 남로전신선 측량 종료 보고

- 1887. 6. 19 신남로전신선 측량선 실지 답사후 귀경
- 6. 19 남로전신선 한성. 부산 동시 착공 제의
- 7. 신병으로 착공 지연
- 10. 기술 책임자로 남로전신선 착공
- 1994. 8 청일전쟁발발로 중국으로 건너감
- 1895. 2. 중국 산둥반도에서 일본군에 포로로 됨.
일본 사세보 수용소에 구금.
모종의 선서후 석방됨.
- 1895. 5. 17. 조선에 귀임 희망(독일 공사가 조선정부에 전달)
- 1896. 6. 농상공부 전무교사로 초빙됨
- 1899. 6. 19 속빙 건의(러시아 공사)
- 6. 29 속빙 계약
- 12. 9 특수 3 품 옥장(통정대부) 서품
- 1900. 5. 31 미류사 제의로 각 전보사장에 17개 항을 훈령
- 6. 25 속빙 계약
- 1901. 12. 외부고문에 임명됨
- 1902. 7. 2 속빙 계약
- 1904. 7. 2 속빙 계약
- 1905. 3. 통신권 피탈로 해고
- 3. 해고에 따른 귀국여비 및 상여금 요청(프랑스 공사)
- 8. 22 불국공사의 요청 조선정부에 의해 거절됨

※ 도입 초창기 20년간 기술고문, 국제협력 담당, 교육훈련 등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으나 당시의 다른 외국 고문들이 일본의 한국 침탈에 동조 내지는 방관하는 입장이었는데 비해서 극력으로 일본의 한국 침탈에 저항한 관계로 상여금 및 귀국여비 보조도 받지 못한채 귀국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찾을 길이 없다. 차체에 한국 정부에서는 당시에 지불하지 못한 상여금 및 귀국여비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며, 외국 언론인인 배설(E. T. Bethell)과 같이 훈장 등을 수여하여 이를 헌창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 전신개설의 공로자



홍 철 주
(사진은 홍철주의 호패)

- 1834. 5. 3 출 생
- 185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 1861. 6. 부안현감
- 1862. 3. 홍분관 교리
- 1863. 5. 예조참의
- 1867. 충청도 암행어사
- 1868. 12. 경주부윤
- 1871. 5. 여주목사
- 1873. 7. 안동부사
- 1875. 울산안부사
- 1876. 3. 이조참의
- 1877. 3. 대사성
- 9. 호조참의
- 1878. 11. 병조참의
- 1882. 3. 한성부윤
- 1883. 10. 의금부사
- 11. 한성판윤
- 1884. 8. 형조판서
- 1885. 11. 예조판서
- 1886. 11. 공조판서
- 1887. 3. 13 전보총국 초대 총판 취임
재직중 전신개설에 공을 세움.
- 1888. 8. 17 전보총국 총판 사임. 병조판서로 전임
- 1886. 2 9. 형조판서 .

電報局 電務局記

이는 진무국의 公片이다. 불초한 내가 총관의 직임을 맡아 丁亥년(고종24년) 봄부터 사무를 집행했으니, 주야로 전전공공하여 오직 본 직무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여러 郎僚와 工匠 및 員役들이 부지런히 箠策에 힘입어 큰 功役이 준공되었다. 이에 章程을 세우고 규칙을 정하여 俸祿을 제정하고 순찰을 엄중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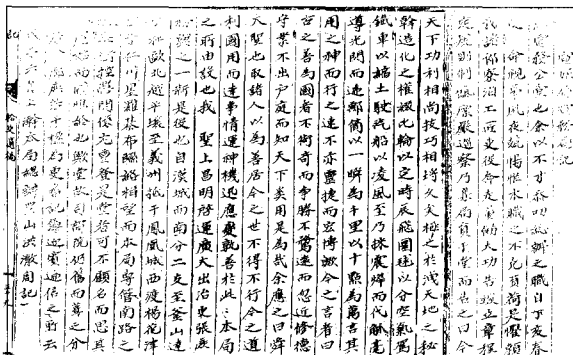
그리고 공청에 국원들을 모아 고하기를 “이제 온 天下가 公利를 崇尚하고 技巧가 相等했으니 천지의 비밀이 漏泄되고 조화의 權能을 운행하여 그 극치에 달하였다. 둥근 시계를 만들어 시각을 정하였고 지구를 날으며 공기를 분석했다. 기차를 運行하여 遠程을 단축시켰고 기선을 달려 바람도 능가하였다. 심지어는 전신으로 靑島를 대신하였고 電光을 인도하여 郵筒을 替代했으니, 일순간에 천리를 통식하였고 十點으로 萬言을 표현하였다. 그 신기한 용법과 신속히 행함은 또한 靈異하고 広博함이 아니겠는가? 이제 혹자의 말에는 옛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기이한 술법으로서 승리를 구하지 않으며 먼데에 힘쓰고 가까운데에 소홀하지 아니하여 德義를 닦고 世業을 지켜 戶庭外에 나가지 않더라도 天下事를 아는 것이니, 어찌 이런 술법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응답하기를 舜임금은 大聖人이나 남의 長點을 取하여 선을 이룩했으니 지금 세상에 살면서 현대의 道를 순행하지 않을 수 없다. 國用에 利롭고 事情을 通達하며 神機를 運行하고 응호에 迅速함이 어찌 이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本局의 설치된 원인일 것이다.

우리 皇上께서 밝은 시운을 열었고 政事를 넓혔으며 서무를 개혁하여 모두 일신하게 하였다 한성으로부터 두 가닥으로 나누어 남으로는 부산에 이르러 구라파에 달하였고, 북으로는 평양을 넘어 의주를 거쳐 鳳凰城에 다달았으며 西로는 揚花津를 거쳐 인천에 이르렀으니, 바둑을 포석하듯 사방으로 연결되었다. 본국에서는 남방으로 빠진 선을 專答했으니, 요충에 배치되어 關係가 더욱 소중하였다.

이 당에 오르는 자는 어찌 명분을 돌아보고 직책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始初를 염려하고 끝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공청은 옛날 司諫院이었는데 이를 修葺하고 약간의 房舍와 廊庑 등을 分置하여 替番하여 장부에 기재하며 賓客을 영접하고 전신의 사무를 집행하는 장소로 삼았다.

고종 25년 무자 6월 상간에
본국 총관 풍산 홍철주는 기하다.



* 편집자주 : 이 글은 초대 조선전보총국 松史 홍철주공의 행적일 적은 松史公行錄(金容完찬) 중에서 번역, 소개한 것이다. 공의 電信에 대한 理解와 事業에 전념한 흔적이 역력하여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감동이 생생하다. 특히 말미에 조선전보총국이 司諫院 지리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점은 지금까지의 문에 쌓여있던 초기 전신 발생지의 위치를 밝히는데 몹쓸 수 없는 史料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초기전신사업의 주역

임 명 장

조 병 직

- 1890. 3. 예조판서
- 1891. 11. 24 병환으로 사망
- 시호 효 현
- 호 송 사
- 유족 : 홍준기(544 - 5393)

※ 조선 전보총국은 우리 나라가 자주적인 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최초의 공식 기관이다. 초대 조선 전보총국(지금의 통신사업 총수에 해당하는 차관급에 준하는 관료)의 총판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가 쓴 “전보국 전무국기”에서 보이는 바 대로 전신의 기능과 대사회적 역할 등에도 정통한 이해를 가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한국 전기통신의 창설자로 예우해야 한다. 우정부문의 홍영식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의 인맥에는 홍철주 이외는 꼽을만한 사람이 없다 하겠다.

- 생존 기간 1834 - 1901(확인 요)
- 186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 미 상 승지, 동래부 암행어사
- 1881.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 시찰
부경리통리기무아문사
감리인천항통상사무
- 1887. 8. 27 협판교섭통상사무
- 1888. 8. 21 전보국 총판 취임(겸직)
- 1886. 9 개성유수(겸직)
9. 1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
- 1890. 7. 2 협판내무 부사(방곡령으로 인한 일
본과의 배상 협의)
- 1892. 9. 22 통서독판 겸임
- 1893. 3. 28 통서독판 사임. 전보총판 전임
8. 17 전우총국관리 취임
11. 26. 독판교섭통상사무 겸임
- 1894. 6. 25 일본의 입김으로 실각
- 1895. 장례원경으로 재등용
- 1896. 범부대신
2. 23 농상공부대신 취임(재직중 전신사
업 재개에 주력 완성)
11. 12 농상공부대신 사임
- 1897. 10. 1 학부대신 취임

근대 체신사업 정착에 공헌



민 상 호



유품

- 1870. 출 생
 - 미 상 미국 유학
 - 1891. 증광분과에 병과로 급제
사간, 집의, 사성, 호조, 형조, 예조참의, 궁내부 참서관, 채용원장 역임
 - 1893. 육원공원 참리
 - 1894. 참의교섭통상사부
 - 1896. 외부 교섭국장, 중추원 의관, 학부 협판
11. 10 농상공부 협판 취임
재직중 독립협회 조직에 위원으로 가담
 - 1897. 2. 3 농상공부 협판 이임
2. 19 전권위원으로 만국우편연합총회 참석
 - 미 상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주재 공사관 참서관 역임
 - 1898. 중추원 의관
10. 10 농상공부 협판 취임(사임 미상)
10. 21 초대 통신원 총판서리 취임
10. 23 초대 통신원 총판서리 사임
 - 미 상 학부 협판, 외부 협판, 예식원 부장, 의정부 참찬, 의정부 찬정 역임.
 - 1900. 3. 21 농상공부 협판 취임
3. 26 통신원 초대 총판 취임(농상공부 협판으로 겸직)
9. 29 농상공부 협판 사임
 - 1904. 2. 16 통신원 총판 사임
 - 미 상 육군법원장
 - 1904. 3. 26 통신원 총판 취임
10. 2 의정부 찬정 겸임 발령
10. 13 의정부 찬정 사임
 - 1905. 3. 30 통신원 총판 사임(통신권 피탈로)
 - 미 상 강원도, 경기도 관찰사, 제도국 총재, 규장각 지후관, 궁내부 특진관, 수확원장 역임.
 - 1933. 사 망
- ※ 통신원 초대 총판으로 또는 통신권 피탈 당시의 항쟁사실 등으로 통신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나 하지만 한일합병 이후 일본정부의 작위를 수여받는 등 말년의 정치적 행적에 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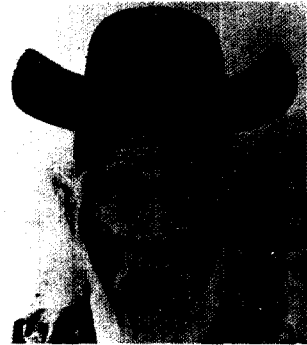
민주주의로 이어진 체신인맥의 거봉



오 세 창

- 1864. 7. 15 서울에서 오경석의 장남으로 출생
- 1880. 사역원 시험(역과)에 합격
- 1886. 박문국 주사. 한성순보 기자 겸임
- 1894. 군국기부처 낭청총재 비서관
농상공부 참의
- 1895. 9. 5 농상공부 통신국장(겸무)
- 1896. 2. 23 농상공부 참서관 사임
4. 30 농상공부 통신국장 사임
- 1897. 8. 14 일본 문부성 외국어학교 조선어 교
사로 초빙되어 도일(1년간 재직)
- 1890. 9 귀 국
- 1902. 개화당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
망명중 손병희의 권유로 천도교 입
교
- 1906. 귀국. 만세보 사장 역임.
- 1907. 대한협회 부회장 역임.
- 1909. 대한민보 사장 역임.
- 1919. 3. 1 33인의 1인으로 3년간 복역
- 1945. 서울신문 초대 사장
- 1945. 전국 애국단체 총연합회장 역임
- 1946. 대한독립촉성회 회장 역임
- 1949. 민주의원 역임
- 1953. 4. 16 대구에서 사망
- 1963. 3. 1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이 수여
됨

통신권 피탈에 항거한 최후의 통신원총판



장 화 식

- 1852. 경북 예천에서 출생
- 1877. 4 의금부도사
- 1879. 12 외아문주사
- 1882. 1 봉화현감
- 1883. 8 성덕현령
- 1887. 7 육군총리국제 1과장
- 1888. 육군경리국장
- 1902. 8 한성부판윤
- 1904. 5 정 2품 사사
육군참장(군부참모국장)
- 1904. 8. 24 통신원 회관 취임
- 1905. 2. 19 통신원 총판 서리
훈 3등 8과장훈장
3. 30 통신원 총판 임명(민상호 후임)
4. 통신권을 보호키 위하여 총판교부및
제 불품 서류 인도에 불복
5 중순 일인 池田十三郎과 日憲兵의 강요
에 의하여 통신권이 피탈되자 사지
에서 끝까지 인계반대운동 주도

유족 : 오일용(543-1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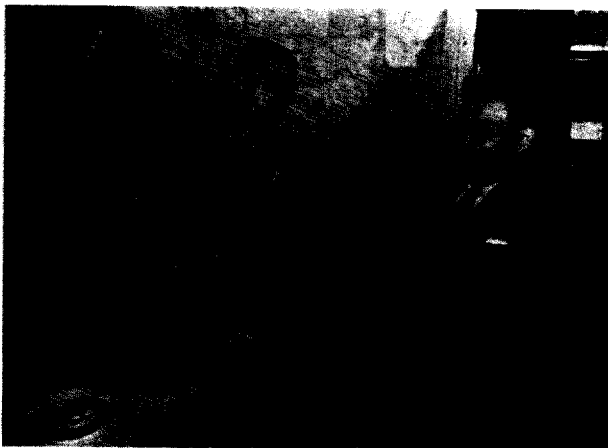
※ 농상공부 통신국장은 당시로서는 체신사업의 총수
격에 해당된다. 그의 재임시 특별한 진전은 없었
다고 하더라도 초창기 체신인맥의 한가닥이 항일
민주주의로 연결된 분이 많은 바 이분은 그대표적
인 인물이라 하겠다.

- 5. 19 관원들에게 반항태도를 고취시킴
- 8. 한일합병신조약(을사보호조약) 체결에 민중정공과 연명으로 조약 반대 상소

-1908. 예천으로 낙향하여 은거
 -1938. 2. 7 86세로 사망

※ 유족 : 상경석(경향신문 편집국장)

※ 통신권 피탈로 통신원 관원들과 함께 항쟁을 주도한 최후의 총판이다. 통신권 피탈이 일본의 한국 침략에 있어서 모든 국가 조약상 최초였다는 점에서 이를 민족적 역사적 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상총판은 그 대표적 인물이다. 더구나 민중정공과 같이 항일의 중추역할을 하였으며, 나라를 잃은 이후에도 낙향하여 은거하는 등 끝까지 일제에 항거한 것으로 보아 격동기 근세사에서는 드물게 초지를 일관한 분이시다.



* 사진주 : 원편 : 파슨즈 대령(2대 체신국장 1946. 3. 24 ~ 1946. 4. 8, 초대 군정청 체신부장 1946. 4. 8 ~ 1946. 9. 18) 오른편 김원봉(초대 군정청 체신부장 1946. 4. 8 ~ 1947. 5. 17)

- 8. 23 괴뢰군에 납북됨(대전거주 동생의 증언)
- 10. 25 납북됨(체신사업연혁사)

* 이하는 서로 상충이 되어 후고를 요함
 유족 : 길경자(장녀) 882-0328

※ 광복직후 재빨리 체신확보위원회를 결성 주도하여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가 일제시 관리를 지냈었다든가(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의 경력에 비해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6.25에 도강치 못하고 납북을 당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홀란속 통신수호의 종인



길 원 봉

- 1904. 2. 21 출 생
 - 신의주국교 졸업
 - 보성중학 졸업
 - 山形고보(일본) 졸업
 - 경도제대 법학과(일본) 졸업
 - 3년 재학중 고등고시 사법과 졸업 1년뒤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 서울지방체신청 보험관리과장
 - 체신본부계약과장
 - 부산지방 체신국장(2년간 재직)
- 1945. 해방직후
 - 체신이원양성소장(한국인으로서는(최고 직위))
- 1945. 8. 체신확보위원회 결성 주도
- 1946. 1. 1 초대 체신국장 발령(미군정)
- 2. 18 체신국장 취임(미군정)
- 4. 8 초대 체신부장 취임(미군정)
- 1947. 5. 17 체신부장 사임(미군정)
- 1947. 5. 17 체신부장 취임(과정)
- 1948. 6. 21 체신부장 사임(과정)
- 1949. 3. 10 심계원 심계관 취임(감사원 20년사)
- 1950. 4. 21 체신학교장 서리 취임(체신사업연혁사)
- 7. 심계관 사임